

「'94서울국제종합전기기기전」 성과보고



韓國電機工業振興會
理事 崔熺昭

1. 개 황

지난 7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한국종합전시장(KOEX) 대륙관에서 상공자원부 주최, 한국전기공업진흥회, 대한무역진흥공사, 한국종합전시장 등 3개기관 주관으로 “제 1 회 서울국제종합전기기기전(SIEF '94)”이 국내외 8개국에서 91업체 및 전기 관련 단체, 한국전력공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전시회에는 국내외 전기공업인들과 해외 우수바이어 및 전기관련인사들은 물론 일반관람객들이 대거 참관하였으며, 7월 5일 개막행사에는 박운서 상공자원부 차관, 이종훈 한국전력공사 사장, 이동호 대한전기학회 회장 등 귀빈과 이희중 본회 회장, 류종열 효성중공업(주) 사장, 유재환 현대중공업(주) 사장 등 증전업계 대표, 전기원로인 등 12명이 참석하여 테이프 커팅을 하였으며 개막식 직후 각계의 귀빈들은 '94서울국제종합전기기기전 개요 설명을 들은 후 전시제품을 관람하였다.

이번 전시회는 그동안 내수 및 관납위주로 성장하여온 국내 전기공업을 수출주도형 산업으로 육성시키고, 우루과이라운드 등 대외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국산제품의 인식 제고와 국제화를 유도하여 수출촉진의 전기를 마련함과 아울러 각종 전기사고 예방,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등 처음으로 치뤄진 국제행사로서는 비교적 성공적이었으며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렸다. 특히 동남아, 일본을 중심으로 외국 바이어가 대거 참관하여 25개국에서 2천여명이 전시회를 관람, 국내의 업체의 총 상담실적만도 2억3천5백만불로서 기대이상의 큰 성과를 올렸다.

2. 성 과

가. 출품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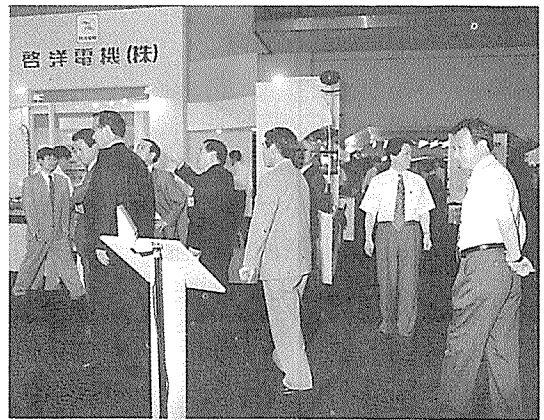
이번 전시회는 금성산전, 현대중공업, 효성중공업 등 국내 주요 중전기업체 65개사 및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등 해외 7개국 16개사를 비롯하여 한국전력공사 등 10개 전기관련 단체가 대거 참여하여 국내외 첨단 전기공업 제품과 최근에 개발한 신제품을 전시하였다.

국내 업체의 출품 규모면을 보더라도 대기업인 금성산전 부문은 금성산전(주), 금성계전(주), 금성기전(주), 금성하니벨(주) 등 4개사에서 총 130여평 규모에 배선용 차단기, 누전차단기, 분전반 등 저압 기기에서 부터 각종 개폐기, 몰드변압기 등 고압 기기를 포함하여 각종 자동시스템 및 배전제어 시스템 까지 다양한 산업용 전기기기를 출품하였으며, 효성중공업(주)와 현대중공업(주)는 변압기 및 전력감시제어장치 등 각종 중전기 제품을 전시하였다.

중소업체인 동남물산(주)에서는 최근 개발한 「배

전선로 고장지점 감식기」를 출품해 관람객들로 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으며, 판넬칭칭프레스를 전시한 우진산기(주)는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해외 바이어와 현장에서 직접 계약하는 등 큰 전시 성과를 얻었다.

중소기업 고유업종 품목인 UPS 및 AVR 제품은 수영전기업을 비롯 태전전기, 건양전기공업 등이 최신 개발된 저소음형 컴팩트한 제품을 출품했으며 차단기 및 개폐기 제품은 일진전기공업, 신아전기공업, 증원전기공업, 제일중전기, 선도전기, 대륙 등이 선보였고 변압기 제품은 동미전기공업, 국제전기, 영화산업전기, 성진전기, 삼흥중전기 등에서 출품하여 관람객으로부터 관심을 끌었으며, 이외에도 대연전자, 마그나전기, 삼화기연 등은 최근 한전자금 및 공발기금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제품을 선보여 많은 업체로부터 기술개발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나. 거래 상담 동향

이번 전시기간 동안에는 국내 전기공업 종사자 및 수요자, 외국 바이어 등 5만2천명의 관람객이 몰려 전문 전시회로서는 보기드문 대성황을 이뤘으며, 특히 동남아, 일본을 중심으로 한 외국 바이어도 25개국에서 2천여명이 찾아와 총 상담실적만도 2억3천5백만불 이상의 실적을 올렸다.

품목별 수출상담실적은 발전기 및 전동기 3천만달러, 변압기 2천3백만달러, 무정전전원 공급장치 및 자동전압조정기 등 변환기 9백만달러, 개폐기, 차단기류 1천7백만달러, 전기로 2천만달러 등 해외 바이

〈표-1〉 품목별 참가업체 현황

품 목	국 내 업 체		해 외 업 체		계	
	업체수	비율(%)	업체수	비율(%)	업체수	비율(%)
발 전 기	2	2.7	—	—	2	2.2
전 동 기	2	2.7	1	6.3	3	3.3
전 동 공 구	3	4.0	—	—	3	3.3
변 압 기	5	6.7	—	—	5	5.5
차 단 기	4	5.3	2	12.4	6	6.6
개 폐 기	6	8.0	1	6.3	7	7.7
배 환 장 치	5	6.7	—	—	5	5.5
전 제 어 장 치	6	8.0	—	—	6	6.6
전 기 용 접 기	5	6.7	—	—	5	5.5
전 기 용 접 기	—	—	—	—	—	—
전 기 용 접 기	2	2.7	—	—	2	2.2
소 형 모 터	3	4.0	1	6.3	4	4.4
건 축 전 지	3	4.0	—	—	3	3.3
기 타 전 기 기	16	21.2	11	68.7	27	29.7
전 기 관 련 단	10	13.3	—	—	10	10.9
기 관 련 단	3	4.0	—	—	3	3.3
계	75	100	16	100	91	100

* 참가업체가 복수품목을 출품한 경우 주요 품목만을 적용.

어를 통한 수출상담만도 1억3천5백만 달러의 성과를 올렸다.

다. 전기신기술 발표회 개최

이번 전시기간중 한국종합전시장(KOEX) 회의실에서 부대행사로 “제1회 전기신기술 발표회”(’94. 7. 8)를 본회와 대한전기학회 공동주관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발표회는 정부 중전기 산업 육성시책등 시장 개방에 따른 정책과제 5개, 산·학·연을 중심으로 최근에 개발한 “전기자동차용 전동기 개발”등 18개의 전기신기술 개발과제에 대한 연구발표회가 개최되었다. 이 발표회에서는 김세중 상공자원부 전자정보공업국장 등 23명이 각각 과제를 발표하였으며, 업체의 신기술 습득 및 신제품 개발의욕을 고취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라. 「SIEF '94」에 대한 참가업체 반응

SIEF '94에 대한 참가업체의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전시회 운영 및 부스 Lay-out에 대한 참가업체의 의견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전시회 참가 동기는 본회의 안내서 및 직접활동에 의해 참가하였다는 업체가 71.4%에 이르러 홍보활동의 성과가 컸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SIEF'94 참가 동기는 기업 이미지 제고(35.6%), 내수확대(28.6

%)를 목적으로 참가동기를 표명한 업체들이 많음에 따라 아직까지 내수 위주의 기업 이미지 홍보를 위하여 전시회에 참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출을 위한 제품 홍보 및 신기술 개발 노력이 타산업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장시간 및 전시기간은 대부분 참가업체가 만족하고 있으나, 개최시기는 3-5월(48.1%), 9-11월(41.1%)로 희망하고 있으며, 또한 해외바이어가 타 전시회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차기 '96 전시회에는 해외바이어 및 외국 참가업체 유치에 따른 적극적인 홍보가 요망되고 있다.

3. 결 론

이번 전시회가 성황리에 끝남에 따라 「제2회 서울국제종합전기기기전」은 '96년도 5월경 개최할 예정이며, 전시품목을 더욱 다양화하여 외국업체 및 바이어 유치를 더욱 확대하고, 중전기기의 시장개방을 계기로 내수 및 관남위주에서 수출주도형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교두보로서 해외참가업체의 비교전시와 함께 국내제품을 종합적·체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종합 전기기기전으로 승화시켜 나갈 계획이다.